

청소년기 탈비행으로의 전환요인에 관한 연구

이 희 연(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전문연구원)

I. 연구목적

비행청소년에 대한 개입의 궁극적인 목표가 탈비행화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개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탈비행 현상에 대해 실제적인 이해를 돕는 연구가 필요하다. 어떤 청소년들이 어떻게 비행과정에서 탈비행으로의 성공적인 변화를 하게 되었는가? 변화를 일으킨 중요 요인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기의 탈비행화 과정과 탈비행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며, 지금까지의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들은 일반 범죄이론을 적용하여 비행원인을 찾는데 집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비행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여 비행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 실제 비행에 빠진 청소년들을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데 있어서는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즉, 청소년이 어떻게 비행에서 빠져나오는가에 대한 경험과정이나 변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비행을 벗어나도록 돕는 효과적인 개입지점이나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는 탈비행에 성공한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의 실제적 경험을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생애과정에서 탈비행이라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변화를 선택한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즉, 탈비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를 위한 전환점(turning point)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탈비행으로의 전환요인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 청소년비행 문제의 예방과 탈비행을 돕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구체적인 개입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청소년기 탈비행에 관한 선행연구

최근의 주요 연구에서 나타난 ‘탈비행’의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면, ‘탈비행(desistance)’은 비행횟수감소나 중단기간과 같은 양적인 측면보다는 비행행위자 자신의 의미있는 질적인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보며(Bushway et al., 2001; Bottoms et al., 2004), 이와 관련하여 Maruna & Farrall(2004)은 비범죄자로서의 정체감 또는 변화된 사람으로 보았으며, 단순히 범죄없는 기간 또는 소강상태(any lull or crime-free gap)는 ‘진정한 벗어남(desistance)’이 아니라고 보았다. 즉, ‘탈비행(desistance)’은 개인자신의 진정한 변화와 세계와의 상호작용방법에서의 진정한 변화를 포함한 점진적인 변화(transistion)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Maruna, 2001). 이러한 탈비행에 관한 기존연구들에서 제시한 청소년 또는 초기성인기 탈비행의 주요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arrington과 Hawkins(1991)은 아버지와 함께 여가활동하기, 학교에 전념하기 등을 탈비행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Loeber 등(1991)은 학교에서 철수되지 않음, 분열적 행동이 적음, 긍정적 동기와 태도 등이 탈비행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Akers(1998)는 비행또래와의 접촉차이를 가장 중요한 탈비행의 요인으로 보았으며, Thornberry와 Krohn(2001)은 가족 유대 강화 등 사회적 영향요소의 변화, 학업성취와 같은 보호요인, 개입프로그램 등에 의해 탈비행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 많은 학자들이 청소년기 탈비행의 중요 요인으로 가족 및 학교와 또래집단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Donenberg et al. 2002; Eddy & Chamberlain, 2000; Paternoster & Brame, 1997). 이러한 논의와 함께 Moffitt(1993)은 변화를 위한 선택기회(option)을 탈비행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녀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발달궤도에서 누적된 불이익이 적을수록, 변화를 위한 선택기회가 많을수록, 보다 성공적 방향으로 ‘변화’와 ‘선택’을 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과정을 만들어 간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Elder(1998)는 인생의 전환점(turning point)을 인생과정의 성공적 변화를 가져오는 대표적 요인으로 보았는데, 전환점의 주요한 특징으로 새로운 시작, 타임아웃이나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유예기간, 상호적인 접촉, 새로운 문화적 경험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전환점은 특히 불이익을 당하는 젊은 이들에게 인생의 큰 기회와 잠재적인 전환을 제공해준다고 보았다(Elder, 1998). Hughes(1998)는 질적연구인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도시 젊은이의 탈비행으로의 전환점 요인을 ‘아동에 대한 배려와 존중¹⁾’, ‘약물남용 및 거리생활 등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과 구속에 대한 두려움’, ‘거주자 프로그램 등 비행환경에서 격리되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숙고의 기간’, ‘지지²⁾ 및 긍정적인 역할모델’ 등 4가지로 밝혔다. 한편, 적응유연성(resiliency)을 탈비행 촉진요인으로 밝힌 연구들이 있다(Kirby와 Fraser, 1997; Born 등, 2002).

1) 비이기적 동기(unselfish motive)로 자기자녀에 대한 양육경험, 범죄환경에서 위험 속에 방치된 어린이를 보고 느낀 연민 등

2) 무조건적 수용, 대화나 조언 및 상담을 필요로 할 때 확실하게 도움 받을 수 있는 것, 여가적이고 가족같은 느낌을 주는 활동에 참여, 교육이나 직업훈련 및 취업에 대한 원조, 자기가치와 자존감 증진을 도와줌.

지금까지는 해외 문헌에 나타난 탈비행의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국내 문헌에서 다룬 청소년기 탈비행 연구를 보면, 적응유연성을 적용하여 탈비행 요인을 탐색한 연구(유성경, 2000), 도시와 격리된 대안학교에서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통해 살펴본 탈비행화 과정에 관한 현장연구(박한샘·오익수, 1998), 비행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단일사례연구(이종수, 2002), 탈비행화 과정에서 나타난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의 변화에 관한 연구(이재규, 2003) 등 질적연구 중심으로 소수 나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탈비행의 요인들은 종합해 보면 사회적 연대의 강화, 변화를 위한 선택의 기회, 전환점, 적응유연성 및 보호요인, 유능감, 발달적 요인 등으로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모두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인들은 비행경력에서 벗어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또한 비행경력을 지속시키는 요인들과 진공상태에서 작동하지 않으며, 역동적이고 집합적으로 탈비행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선정

근거이론에서 참여자 선정은 이론적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표집하는 것이다 (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비행에서 벗어난 청소년 14명(A~N)으로, 5곳의 청소년복지 관련기관에서 사회복지사 등으로부터 연구참여자를 추천받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탈비행 기준은 첫째, 청소년 본인이 비행과정에서 벗어났다고 느낌, 둘째, 객관적으로 부모, 사회복지사, 교사, 청소년전문가 등 주변의 책임있는 성인 1인 이상에 의해 비행에서 벗어났다고 평가됨, 셋째, 적어도 최근 6개월간 비행행동을 중단하였거나 현저히 감소함, 넷째, 청소년 본인이 가정, 학교 혹은 소속된 집단에 적응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낌 등이며,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을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로 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은 심층면접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모든 사례는 녹음을 한 후 텍스트로 필사하여 이를 원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질적내용분석을 통해 요인을 밝히기 위해 근거이론의 분석도구인 질문하기, 단어, 구문, 문장의 분석, 비교를 통한 심화분석,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 등(Strauss와 Corbin, 1998)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절차는

개방코딩(Open coding)의 개념화 작업, 범주발견하기(Strauss와 Corbin, 1998) 등을 적용하였다.

3.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질적연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Guba & Lincoln(1985)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4가지 측면을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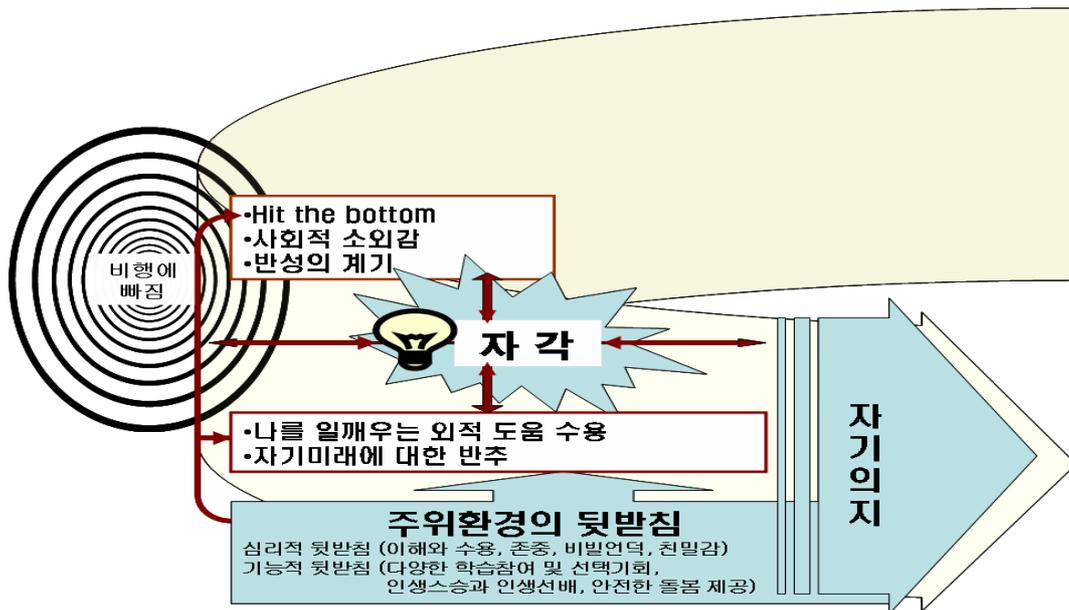
IV. 연구 결과

개방코딩은 근거자료를 통해 개념을 발견하고 명명하여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사고나 사건, 물체, 작용/상호작용을 하위범주로 묶은 후 범주화하는 과정이다 (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로부터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분석을 통해 개념을 명명하고 그 개념들을 무리지어 범주화시키고 이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계속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60개의 개념과 22개의 하위범주가 나왔으며 이러한 하위범주를 한층 더 추상화시킨 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개방코딩에서 얻은 개념을 범주화한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표 1>과 같으며, 도출된 각 요인들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표 1> 근거자료의 범주화

범주	하위범주	개념
hit the bottom	노는 생활에 질림	노는 게 더 이상 재미가 없음/노는 게 그게 그거고 뻘뻘/노는 생활이 짜증남
	노는 게 고생스럽고 힘듦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게 고생스러움/돈도 없고 돈 없이 놀 것도 없고 노는 게 힘듦
	노는 생활에 대한 회의감	무의미한 노는 생활이 허무하고 허탈함
	노는 생활에 대한 막연한 문제인식	이게 아닌데 리는 느낌/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
	변화에 대한 막연한 바람	그만해야겠다는 맘/그만할 때도 됐다는 느낌
사회적 소외감	서러움	자신의 모습이 서럽고 한심하다고 느낌/학교안가는 것 때문에 차별받는다고 느낌
	심리적 우울감	평범한 또래를 보면 괜히 우울해지고 자극받음/생활이 짜증나고 답답함
	평범한 생활로의 회귀선망	학교생활이 그리워짐/교복입은 모습이 부러움
반성의 계기	누진적 계기	교정기관에서 반성함/자기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가족에 대한 미안함/탄산지석으로 자신을 반성함/잔소리가 서서히 마음에 새겨짐
	결정적 계기	비행사건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음/비행친구에게 큰 배신감을 느낌

범주	하위범주	개념
자각	자각과정	알 나이가 됨/감자기 생각이 확 들/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깨닫게 됨/결정적 계기와 주위의 일깨움으로 깨달음
	자각경험	나 자신에 대해 알게 됨/사회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됨/사회에서 살아가려면 할 건 해야 된다고 느낌/내가 열리고 세상을 받아들임/내 주위가 보임/귀가 열리고 들림/나를 돌아봄/생각이 점차 달라짐
자기미래에 대한 반추	미래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불안감	미래에 먹고 살길이 막막하다는 생각/사회의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불안감/비전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불안감	하루하루 시간만 낭비함/내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
	미래 내 모습에 대한 고찰	내 인생 제대로 살아왔다는 생각/내 평생 배달만 하고 살수 없다는 생각
나를 일깨우는 외적 도움수용	사방에서 나를 일깨움	나를 일깨우는 힘이 사방에서 겹쳐옴/운이 좋게 적절한 시기에 관심이 몰려옴
	주위의 염려와 관심을 받아들임	주위의 염려가 마음에 와 닿음/주위의 관심을 받아들여 내안에 뿌리내림
주위환경의 뒷받침	심리적 뒷받침	이해와 수용/관심/존중/비밀언덕/친밀감
	기능적 뒷받침	다양한 학습 선택 및 참여의 기회/인생의 스승/인생의 선배/안전한 돌봄 제공
자기의지	마음잡음	이제는 안한다고 마음먹음/확실히 마음잡음
	자신의 의지	자기하기에 달림/자신의 의지가 생김
	자기절제와 노력	스스로 자제함/끈기를 가짐



[그림 1] 청소년기 탈비행으로의 전환 요인들

청소년들이 어떻게 비행에서 벗어나게 되는가? 그러한 탈비행으로의 전환과정의 첫 발단이 되는 것이 'hit the bottom 및 사회적 소외감과 반성의 계기' 등으로 인한 '자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각(自覺)'이란 국어사전(두산세계대백과사전, 2004)에 의하면 '1. (자기의 처지를) 스스로 깨달음, 2. 스스로 느낌'을 의미하며, 철학적 의미로는 '자기의 존재 방식을 반성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의식에 떠올려 스스로 깨닫는 것'이라 할 수 있다(Pascal 세계대백과사전, 2002). 참여자들은 '어느 순간' 노는 생활에 지겨움과 회의감을 느끼거나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즉 노는 생활에서 '바닥을 친 것(hit the bottom)'인데 이러한 '바닥을 친 경험'과 비행생활에서 느끼는 '사회적 소외감 및 심리적 불편감(사회적소외감)' 그리고 '누진적 및 결정적 반성의 계기(반성의 계기)'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문제와 처지를 느끼고 깨닫게(자각)' 되었다. 이러한 자각은 자기미래에 대해 음미하고 되풀이하여 생각(자기 미래에 대한 반추)하면서, 그리고 자신을 돕는 주위환경의 뒷받침(주위환경의 뒷받침)과 그러한 외적도움에 대해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수용(나를 일깨우는 외적도움수용)하게 되면서 '자각'이 지속적으로 강화·유지되면서, 비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기의지'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자각과 주위환경의 뒷받침 등 각 요소들의 역동적인 영향으로 '자기의지'는 더욱 강화되면서 청소년들은 점차 비행을 벗어나 적응적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하며, 그러한 노력으로 탈비행에 성공하면서 일상에 적응하고 성장하게 된다. 즉, 청소년기 탈비행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비행중단이나 일시적인 비행소강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과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내적·외적으로 변화해가는 점진적인 긍정적 변화와 성장과정'으로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청소년기 탈비행으로의 전환요인은 'hit the bottom', '사회적 소외감', '반성의 계기', '자기 미래에 대한 반추', '나를 일깨우는 외적 도움 수용', '주위환경의 뒷받침', '자각', '자기의지' 등 8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기 탈비행을 위한 개입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탈비행으로의 전환요인 중 'hit the bottom, 사회적 소외감'과 함께 '자기미래에 대한 반추'는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로 회귀하고자 하는 선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소속감과 안정감을 필요로 하며, 더 나아가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존재로서, 기본적 성장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청소년기 탈비행을 위한 개입은 현재의 비행문제만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개별적, 심리사회적 욕구와 주관적 경험을 존중하고, 청소년들의 자기(self)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성장욕구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 그 자신의 심리·사회적 성장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탈비행으로의 전환요인 중 하나인 '자각'은 개인내적인 과정만이 아니라 각 요인들에 복합적이고 역동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심리사회적 과정으로, 참여자들은 '자각하기까지' 끊임없이 내적·외적으로 자극(각 요인들)을 받으면서 심리적 변화가 조금

씩 일어나지만 인식하지 못하다가(무의식적 과정) 어느 순간 크고 작은 계기로 '자각'(의식적 과정)하게 된다. 즉 탈비행으로의 전환요인중 하나인 '자각'이 일어나기 까지 누적적이고 복합적인 역동적 심리사회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은 무의식적 과정을 포함하므로 쉽게 개입효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단선적인 인과과정이 아니므로 개입효과를 증명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기 탈비행의 개입은 조급한 개입의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탈비행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드러나지 않는 과정을 인내하고 지켜봐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전환요인 중 '주위환경의 뒷받침'은 '기능적 뒷받침과 심리적 뒷받침'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능적 뒷받침의 하위범주로 나타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선택 및 참여기회, 인생의 본이 되는 인생스승, 나의 진로탐색과 기능습득이나 학습을 돕고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해주는 인생선배(멘토), 안전한 돌봄을 제공해주는 사회적 안전망' 등은 탈비행의 개입 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체적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탈비행을 돕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적성과 흥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 및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는 등 청소년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탈비행의 기회(option)와 전환점(turning point)이 되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심리적 뒷받침'의 하위범주로 나타난 '이해와 수용, 관심과 존중, 힘들 때 기댈만한 비빌언덕, 친밀감' 등은 청소년들이 '자각'을 촉진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나를 일깨우는 외적도움수용' 요인의 기본 전제인 '자기개방'을 돕는 구체적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청소년기 탈비행을 위한 개입은 현재의 비행문제만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개별적, 심리사회적 욕구와 주관적 경험을 존중하고, 청소년들의 자기(self)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성장욕구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의 성장과정을 돕는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 자신이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존중, 이해와 수용 및 긍정적 변화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지켜봐주고 기다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 두산새동아국어사전(2004). 서울 : 두산동아.
- 박한샘 · 오익수(1998). "탈비행화과정 탐색에 대한 현장연구". 청소년상담연구, 6, 60-92.
- 신경림 역(2001). Strauss. A. & Corbin. J. 저. 질적연구 근거이론의 단계. 현문사.
- 유성경(2000). "청소년 탈비행과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학연구, 32(3) : 81-106.
- 이종수(2002). 무의탁 보호소년의 사회복지 과정에 관한 단일사례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재규(2002). 청소년 탈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지각, 대처행동, 부모-청소년 상호작용의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ascal 세계대백과사전(2002). 서울 : 동서문화.

Akers, R. L. (1998). *A Social Learning Theory of Crime*. Boston, Mass: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Born, M., Chevalier, V. & Humblet, I. (2002). "Resilience, desistance and Delinquent Career of Adolescent Offenders". *Journal of Adolescence*, 20(6), 679-694.

Bottoms, A., Shapland, J., Costello, A. Holmes, D. & Muir, G. (2004). "Towards desistance : Theoretical Underpinnings for an Empirical Study". *Howard Journal*, 43(4), 368-389.

Bushway, S. D., Piquero, A. R., Broidy, R. L., Cauffman, E. & Mazerolle, P. (2001). "An Empirical Framework for Studying Desistance as a Process". *Criminology*, 39, 491-515.

Donenberg, G. R., Wilson, H. W., Emerson, E. & Byant, F. B. (2002). "Holding the Line with a Watchful Eye : The Impact of Perceives Parental Permissiveness and Parental Monitoring on Risky Sexual behavior among Adolescents in Psychiatric Care". *AIDS Education and Prevention*, 13(2), 138-157.

Eddy, J. M. & Chamberlain, P. (2000). "Ramily Management and Deviant Peer Association as Mediators of the Impact of Treatment Condition on Youth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5), 857-863.

Elder, G. Jr. (1998). "The Life Course and Human Development".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In Lerner, R.(ed). New York: Wiley. R.

Farrall, S. & Maruna, S. (2004). "Desistance - Focused Criminal Justice Policy Research : Introduction to a Special Issue on Desistance from Crime and Policy". *The Howard Journal*, 43(4), 358-367.

Farrington, D. P. (2003). "Developmental and Life-course Criminology : Key Theoretical and Empirical Issues - The 2002 Sutherland Award Address". *criminology*, 41(2), 221-255.

Farrington, D. P., & Hawkins, J. D. (1991). "Predicting Participation, Early Onset, and Later Persistence in Officially Recorded Offending". *Crimin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1, 1-33.

Hughes, M. (1998). "Turning Points in the Lives of Young Inner-city Men Forgoing Destructive Criminal Behaviors : A Qualitative Study". *Social Work Research*, 22(3), 143-152.

- Kirby, L. D. & Fraser, M. W. (1997).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In Ftaser, M. W.(ed).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An Ecological Perspective*, Washington D.C.: NASW Press.
- Loeber, R., Stouthamer-Loeber, M., Kammen, W. V. & Farrington, D. P. (1991). "Initiation, Escalation, and Desistance in Juvenile Offending and Their Correlate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82, 36-82.
- Maruna, S. (2001). *Making Good: How Ex-Convicts Reform and Rebuild their Live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offitt, T. E. (1993). "Adolescent-limited and Life-course 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674-701.
- Paternoster, .R. & Brame, R. (1997). "Multiple Routes to Delinquency ? A Test of Developmental and General Theories of Crime". *Criminology*, 35, 49-84.
- Thornberry, T. P. & Krohn, M. D. (2001) "The development of delinquency: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In Susan O. White(ed.), *Handbook of Youth and Justice*. New York: Plenum.